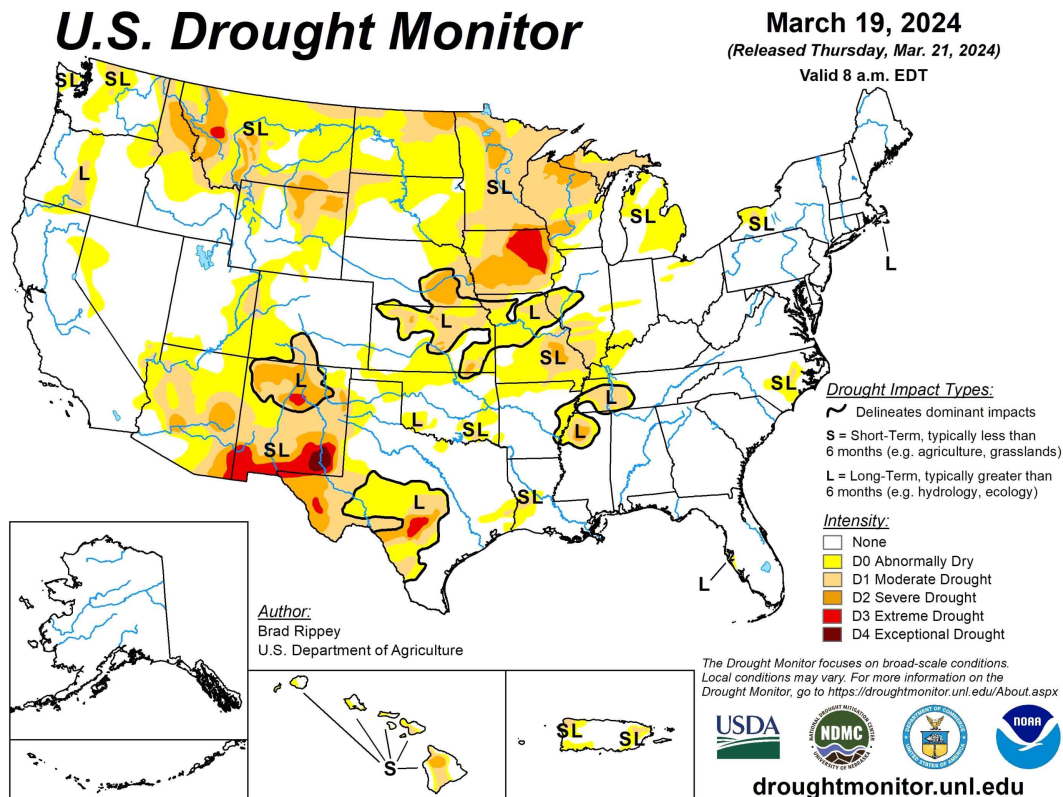




3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13)

□ 미국 기후 현황(3/17-3/23)

서부에 따뜻함이 찾아오고 미국 중부와 동부 전역에 쌀쌀한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라 대부분이 며칠 동안 평온한 날씨를 보냈다. 북부 평원에서부터 오대호 주들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와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까지 기온은 일반적으로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더 건조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비가 때때로 남부 전역에서 계속되었고, 가장 심한 소나기 가운데 일부가 3월 21일 미국 걸프 연안의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나중에 그 비를 일으킨 폭풍 전선이 대서양 연안을 따라 강화되면서 주 후반에는 플로리다에서부터 메인까지의 많은 지역에 폭우를 내렸다. 주 후반에 또 다른 패턴 변화로 인해 서부 전역에 다시 산발적이거나 광범위한 비와 눈 소나기가 내렸다. 결국 두 개의 서부 폭풍 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첫 번째 것은 3월 20-22일에 몬태나에서 미시간까지 한 줄의 강설 지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더 강한 폭풍은 3월 23일이 되자 북서부에 상당량의 강수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전선이 가져온 추가적인 영향은 3월 24-30일 주까지 미쳤고 다음 주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세계 기후 현황(3/17-3/23)

■ 유럽:

이례적인 따뜻함이 지속되었으며 유럽 대륙의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으나 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그보다는 날씨가 건조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유럽 대부분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아주 따뜻한 조건들이 기록되었다 (평년보다 5-9° C 높았고 최고 기온이 30° C에 육박). 그 결과 겨울 작물들은 계속해서 평균 대비 2-4 주 앞서 발달 중이었다 (국지적으로는 더 앞서서). 더욱 주목할 점은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례적인 따뜻함이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재촉하여 3월말 현재 결빙에 더 민감한 후기 영양기 내지 초기 생식기에 들어가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이전 주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중부 및 북부 농작물 지역 전체에 걸쳐 소나기가 널리 퍼졌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까지 2-30 mm의 강우가 있었다. 이탈리아 동부에서 그리스와 발칸반도 서부까지 소나기 (국지적으로 최대 25 mm)가 몇 차례 내리기는 했지만 지중해 분지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안착되었다. 수분 공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었으나 헝가리, 세르비아 북부, 루마니아 남부 그리고 불가리아 북동부는 토양이 좋지 못하게 건조한 상태에 있었다.

■ 구소련(서부):

추가적으로 유익한 소나기가 내린 서부 농경지와 대조적으로 동쪽은 급성 단기 건조를 겪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그리고 몰도바 남부에서 총 10-30 mm의 강우량으로 내린 비는 수분 결핍을 더욱 완화했으며 영양기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전망을 개선했다. 따뜻한 날씨 (평년보다 2-4° C 높은) 덕분에 서부 및 북부 경작지 전역에서는 겨울 작물의 녹화와 영양 성장을 정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에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가 단기 강수 부족을 심화시켰다. 앞서 언급한 동부 재배 지역들에서는, 영양기 (남부) 및 휴면기 (북부) 겨울 작물들의 수분 요구량이 여전히 낮은 했지만, 지난 30일간 날씨가 아주 건조했다 (국지적으로 평년 강우량의 10 퍼센트 미만).

■ 동아시아:

남중국에서 매우 강하게 유입되는 습기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폭풍 전선과 충돌하면서 겨울과 봄 작물 모두에게 유익한 강우를 내렸다. 장강 계곡에 있는 유채와 남동부에서 새로 심긴 조생종 벼는 50 mm의 비를 받았다. 이에 더해, 그 폭풍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따뜻한 날씨가 세력을 떨치면서 작물 발달을 촉진했다. 한편 소나기 (최대 50 mm)가 화북평원 일부에 내리면서 영양기 밀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동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여름작물의 수확을 여러 번 지연시켰으나 그 비는 곧 다가오는 겨울작물의 파종에 앞서 표토 수분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퀸즐랜드 남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면화와 수수의 성숙 및 수확에 유리했다. 밀 지대의 남부와 서부 전역에서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세력을 떨쳤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권 토양 수분이 정상 수준을 맴돌기는 하지만 겨울 작물의 재배기가 급속하게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비가 내린다면 수분 공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길 것이다. 밀, 보리 및 캐놀라의 파종은 대개 매년 4월에 시작되며 대부분의 작물은 6월에 파종된다. 대부분의 밀 지대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2° C 이내였고 최고 기온은 대부분이 섭씨 20도 후반 내지 30도 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방에서 늦게 발달하는 여름곡물, 유지작물 및 면화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거쳐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총 25-100 mm의 비가 내렸고 비슷한 양이 북서부 (살타 및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다. 1월부터 여러 차례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과 건조함을 겪어온 코르도바 남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는 건조한 조건이 우세했다. 낮 최고 기온은 먼 북쪽의 섭씨 40도 초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20도 후반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적당한 수분으로 자라는 지역에 있는 여름작물들의 일반적으로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남부 농업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에서는 야간 저온이 국지적으로 5° C 이하로 떨어졌으나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3월 21일 현재 해바라기는 58 퍼센트 수확되었고 (작년은 41 퍼센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에서는 각각 45 및 65 퍼센트 수확이 완료되었다.

■ 브라질:

이전에 건조했던 브라질 남부의 농경 지역에 다시 내린 소나기는 최근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하면서 건조했던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았던 미성숙한 여름작물을 위해 때에 맞는 수분을 공급했다. 파라나와 히우그란지두술의 주요 농경지역들에는, 마투그로수두술과 상파울루에 거의 완전히 건조한 소구역들이 있는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내리기는 했지만, 총 25-100 mm의 비가 내렸다. 이 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초반에서 후반의 범위를 보였고 마투그로수두술과 그 주변에 가장 높은 수치가 집중되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1일 현재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대두가 3 퍼센트가 수확되었고 해당 작물의 대부분 (59 퍼센트)은 종실 비대기였다; 한편 옥수수는 74 퍼센트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초작 옥수수와 대두가 3월 18일 현재 각각 87 및 80 퍼센트 수확되었다; 2기작 옥수수는 96 퍼센트 파종되었고 그 중에서 15 퍼센트가 개화기 내지 종실 비대기였다. 한편 더 북쪽에서는,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은 매우 다양하여 일부 건조한 소구역들이 있기는 했지만, 따뜻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만연했다. 고이아스와 미나스제라이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총 25-100 mm의 강우로 덮였고 마투그로수 전역에 비슷한 양이 산발적으로 내렸다. 북부 농지에서는 여름철 더위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에 도달)가 옥수수와 대두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는데 한편으로 작물의 수분 요구와 증발 손실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북부의 우기는 일반적으로 5월에 끝나지만 4월에 더욱 건조한 조건이 발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확량 기대치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강우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